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SUBIC LANGUAGE CENTER에서 4주간 수업이 진행되었다. 큰 도로가 가까이 있어 시내에 놀러 나가는 게 어렵진 않았지만 수업 장소가 산 속에 위치해 있어 벌레가 많았다
수업	아침 8시부터 하루에 8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된다. 그룹 수업 네 시간, 개인 수업 네 시간이 있고 그룹 수업 중 토익 스피킹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상 자유대화 위주의 수업을 했다. 다른 그룹 수업 중 MMC는 한 달 동안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뮤직비디오, 상업 영상을 만드는 과제가 주어진다.
Activity	지난 시즌에 있었던 바비큐 파티나 마닐라 투어가 없어졌고 대부분 근처 관광지를 둘러보는 위주의 활동이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많이 더울 줄 알고 걱정이 많았는데 얇은 긴팔을 입고 하루종일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 학교 같은 경우엔 하루종일 냉방이 가동되기 때문에 외투가 필요할 정도였고, 잘 때는 가끔 추위를 느끼기도 했다
안전	가드분께서 24시간 학교를 지키고 계시기도 하고 어딜 돌아다녀도 총을 갖고 있는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어 한 번도 안전의 위협을 느낀 적 없다
숙소	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생활하기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조금 열악하고 산 속에 위치해 있어 벌레와 도마뱀이 많았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 급식은 중고등학생 때 먹던 것처럼 제공됐고 외부 식당 같은 경우 조금 짜거나 달다는 평이 많았지만 한국에서 먹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통	학교 정문에서는 30분 정도 기다려야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15분 정도 걸어가면 큰 도로가 있어 쉽게 시내에 나갈 수 있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및 사비	70만원	
합계	7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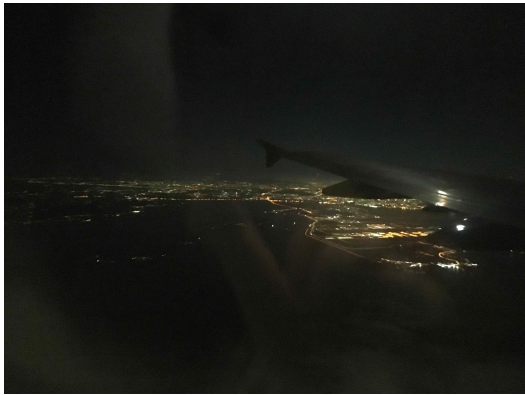
국제교류처에서 짧은 면접과 두 번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이외에는 공항 규정에 맞춰 짐을 싸는 것 말고 준비할 것이 없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나도 그렇고 한 달 동안 함께 생활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애초에 영어권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영어에 대한 이해가 깊고 영어를 잘 사용할 줄 아는 듯한 학생들이 많이 보였고, 전체 학생이 영어가 크게 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심이 있기는 하고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욕구를 해소하지 못 하던 학생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를 계기로 내가 원어민과 얼마나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인천공항 출국 중 찍은 사진	기숙사에서 보이는 학교 풀장
	
액티비티인 요트 투어 중 찍은 사진	주말에 놀러 갔던 올핸즈 비치
	
액티비티인 리조트 방문 때 찍은 사진	액티비티인 수빅 투어 중 찍은 사진